

이슬성신을 내려 인류를 구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동방나라 모퉁이땅 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목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그랬죠? 이 땅에 위에 구세주가 와서 마귀를 전멸하게 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구세주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늘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지기 때문에 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자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사람이 광명한 빛을 받으면 피로한 것이 없어집니다. 광명한 빛을 받으면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소멸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승리제단 식구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된다

제일 먼저 승리제단 식구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그다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마귀가 소멸되는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면 사람의 몸이 없어집니다.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신에게 들어와서 육체가 생긴 겁니다. 마귀의 영이 소멸되면 사람의 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마음먹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가 앞에 있고 배가 먹고 싶으면 배가 앞에 있고 옛이 먹고 싶으면 옛이 있는 겁니다. 마음먹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승리제단의 역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인 겁니다. 그때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상이나가 달나라 별나라 가는데 일초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을 날으면 바람의 저항을 받죠? 그 세상은 바람의 저항

을 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먹은 상태로 그대로 그 순간에 가버립니다. 순간에 가버리고 순간에 갔다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세상을 사니까 말할 수 없이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제단에는 보통 복 있는 사람이 못 오는 겁니다. 대대로 선한 일을 적덕한 사람의 자식만 이 승리제단에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제단 나와 앉아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야 되고 저절로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영이고 선악과의 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선악과가 나라는 의식이라는 걸 알아요? 모르죠?

구세주는 한국에서 나온다

구세주가 한국 땅에 나타난다는 말이 성경에도 쓰여 있고 불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라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일으키리라' 이 지구 평위에 동방나라는 한국나라와 일본나라를 가리킨 겁니다. 왜 '섬들이 잠잠하라' 했느냐 하면 일본나라는 섬나라인 고로 섬나라에서는 구세주가 못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방의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니 열국 왕들이 세계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는 겁니다. 왜? 동방의 의인은 전지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된 다음 인간으로 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완성자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지전능자가 된 겁니다. 아시



구세주 조희선

겠습니까?

한국으로 이주하게 한 하나님의 뜻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천년 전에 이스라엘 소라라는 땅에서 살던 단군 할아버지 자손들을 동북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랄알타이 산맥에 가서 수백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살았던 겁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우리 민족이 우랄알타이 산맥에 가서 살게 되니까 알타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사니까 알타이 말을 배우지 않으면 교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알타이 말을 배운 겁니다. 알타이 말을 사용했던 우리 민족이 알타이 산맥에서 살

다가 몽고 쪽으로 일차 이동을 한 겁니다. 몽고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가서 자리를 잡고서 고조선을 설립했던 겁니다. 고조선을 5천년전에 설립했다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꾸며서 한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 사사기 18장에 가서 보면 단지파가 동북쪽으로 이주해갔다는 말만 쓰여 있지, 한국 땅에 머물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3천년 전에 이스라엘의 '소라'라는 땅에서 살다가 동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소라를 가보면 '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왜? 우리 단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름이 '단'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도 '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삼천년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실상 3천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몽고에서 살다가 압록강 건너 대동강변에 와서 고조선을 설립하고 천년이 넘도록 거기에서 살 때에 알타이 말을 썼던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알타이어족이라고 동양사에게 쓰여 있는 겁니다. 알타이 말이 발전되어 가지고 한국말이 된 겁니다.

이렇게 깊이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대로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한 일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짓날 팔죽을 해서 옛날에는 문설주에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도 양의 피를 유월절날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애굽나라에서 노예생활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아무런 사고가 없는 데 안 바른 애굽나라 사람들 집집마다 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나라 바로왕이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중을 이끌고 광야로 향해서 갈 때에 홍해가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는데 뒤를 돌아보니 애굽나라 기마병들이 막 추적을 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모세가 급하니까 지팡이를 바짝 들고 홍해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닷물이 벽을 쳐서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길이 생긴 그 길로 이

스라엘 60만 대중이 홍해를 건넌던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나라에서 잘 먹고 잘 지내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말을 해라!"하고서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까지 인도하라고 해서 인도했으나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해서 우리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이슬 만나입니다. 이슬만나가 내려서 눈처럼 수북하게 마당에 쌓이니까 그 만나를 삼태기로 퍼다가 하루 먹을 만큼만 퍼다가 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이슬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슬성신을 내려서 구원하는 구세주를 말한다

모세가 말하기를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쓰여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구세주이지만 앞으로 나타날 이슬성신을 내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2월 15일 설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6장 40년의 광야생활》

(7)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르지 아니하시다 / (8)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7)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르지 아니하시다

시내광야에서 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 때에도 변함없이 그와 같은 약속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축복받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

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3장 3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만 빼내어 동방의 땅 끝 땅 모퉁이로 인도하시고 숨겨서 구세주를 배출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會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어 불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나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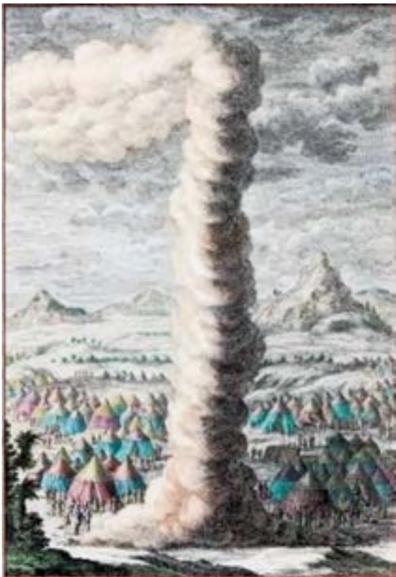
모세가 장막으로 행차할 적마다 모든 백성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모세가 장

막으로 들어 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문간에 섰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장막 문간에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각기 자기 천막 문간에 서 있다가 또 옆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뒤에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곳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크게 통곡하고 그들 자신의 몸에 걸친 장식품을 떼어내고 다시는 패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출 33:9)

로 몸을 단장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 또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걱정이 되어, 회막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뢰었습니다.

"이 민족이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함께 가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이곳을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8)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 가지고 오너라. 깨뜨려 버린 먼저 돌판에 새겼던 말을 다시 써 주마. 아침까지 준비하여 아침 일찍 시내 산 꼭대기에 가지고 오너라. 그때는 아무도 같이 올라와서는 아니 되느니라."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돌로 먼저 것과 같은 돌판 두 장을 밤새워 깎아 만들고, 그것을 들고 아침 일찍 시내 산에 올

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에 싸여 있는 가운데 불덩어리로 임하였습니다. 모세 앞에서 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야훼(여호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수 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영원무궁토록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발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느니라."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시라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라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